

무상점검·수리비 지원·공짜 견인... 침수피해車 구하라

완성차업체 수해지역 특별서비스

현대·기아 차량 정비·생필품 지원
쌍용자동차 수해차량 전담팀 운영
르노삼성·한국지엠 무상점검·견인

전국적으로 장마와 국지성 호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장마 및 태풍 기간 동안 수해 차량을 위해 긴급출동 및 각종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해지역 특별 서비스'를 실시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르노삼성이 발빠르게 수해 차량 지원에 나선 가운데 현대·기아차·한국지엠도 무상점검과 수리비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엠 웨보레 직원이 수해차량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쌍용차는 오는 10월말까지 장마철 국지성호우나 태풍, 게릴라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 차량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해차량 특별 정비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쌍용차는 우선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수해차량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보험 미적용 수해 차량에 대해서 총 수리비(부품+공임)의 30%를 할인해준다.

특히 재난·재해지역 선포 시 해당지역 관청과 연계해 인근 AS(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에 합동서비스팀을 설치하고 긴급출동 및 수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모성 부품도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필요하면 비상 시 동 조치도 할 예정이다.

르노삼성도 오는 10월까지 수해 차량 고객에게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수해 차량 특별 지원 캠페인은 전국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및 협력 서비스 센터에서 이뤄진다. 보험수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며, 유상수리(비보험) 고객에게는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30% 할인(최대 500만원 한도)해 준다.

또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르노삼성의 '내차사랑 수리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중복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도 매년 '수해 특별점검서

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수해 차량 무상점검 및 '피해 차량 정비 지원'은 물론 이차민 피해 복구를 위한 무료 세탁 서비스, 생필품 지원 등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 바 있다.

현장 조치가 어려운 차량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현대), 오토큐(기아)로 입고해 수리하고, 현대모비스와 함께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줌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지엠도 수해 피해 차량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구입 특별 혜택과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시동을 걸면 엔진과 변속기, 전기장치 등 차량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근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V30·G7 강점 더한 'LG V35 씽큐' 출시

초경량·초고성능에 AI 카메라까지
이통사 자급제 출고가 104만8300원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5 씽큐(ThinQ)를 이통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6일 출시했다. /LG전자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5 씽큐(ThinQ)'를 이통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6일 출시했다.

LG V35 씽큐는 얇고 가벼운 LG V30의 디자인에 LG G7 씽큐의 강력한 성능을 담은 제품이다. 6인치 18대9 화면비의 올레드 풀비전 디스플레이에 6GB램, 64GB의 내장메모리가 적용됐으며 출고가는 104만8300원이다.

LG V35 씽큐는 ▲스스로 사물을 인식해 최적의 화질을 추천해 주는 'AI 카메라' ▲최대 7.1채널의 사운드를 전달하는 'DTS:X 3D 입체음향' ▲뛰어난 명암비와 빠른 응답속도로 생생한 고화질을 즐

스' ▲피사체를 돋보이게 촬영할 수 있는 전후면 아웃포커스 카메라 ▲3초마다 1장씩 최대 20장까지 연속 촬영해 GIF 파일로 만드는 '플래시 점프 컷' ▲타이머 촬영 시, 촬영 타이밍을 플래시로 알려주는 '타이머 플래시' 등의 기능을 담았다.

LG전자는 LG V35 씽큐 출시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LG V35 씽큐를 구매한 고객은 액세서리 패키지(BTS 팩, 프리미엄 팩) 중 한 가지를 '기프트팩' 앱에서 LG 페이로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건강 관리 가전 5종(LG 퓨리케어 정수기,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LG 트롬 스타일러, LG 힐링미 안마의자, LG 트롬 건조기)의 렌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이용권도 받게 된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최종철 현대해양서비스 대표(왼쪽 첫번째)와 안광현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현대상선의 배기가스세정장치 개조공사 기술협력 협약(MOU)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 '친환경선박 개조사업' 결실

상반기 수주액 1억달러 돌파 '두각'

선박 유지·보수·수리업체인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조선업계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친환경선박 개조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조선업계 블루오션으로 평가되는 친환경선박 개조 서비스 분야에서 수주액 1억달러를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선박개조는 배기가스세정장치,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등을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이 분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수주한 1600만 달러의 7배가 넘는 1억2000만달러를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기가스 세정장치 18척,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29척 등 총 47척에 대한 친환경 설비 개조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특히 국내 업체 중 최초로 배기가스 세정장치 장착을 제품 공급에서부터 설치, 시운전까지 일괄도급 방식으로 수행할 예정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더 K9 주행모습.

기아차 K9 고객 초청 클래식 음악 감상회

기아자동차와 렉시콘이 더 K9의 뛰어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승과 음악감상회를 개최한다.

음악감상회 '살롱 드 K9 클래식 인비테이션'은 기아차와 렉시콘이 플래그십 세단 더 K9에 걸맞은 품격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살롱 드 K9'에서 진행되며 올해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5회 실시될 예정이다.

'살롱 드 K9 클래식 인비테이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는 12일까지 '살롱 드 K9' 문의전화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기아차는 이벤트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쌍의 커플을 행사에 초청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시네마 클래식 음악 감상회는 음악 칼럼니스트 정준호씨가 진행을 맡으며 ▲유성영화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 ▲무지컬 걸작 영화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화속 명장면과 함께 듣는 클래식 음악 등 영화음악 관련 콘텐츠, 그리고 유명 공연 영상물을 함께 감상하고 해설을 곁들이는 공연음악 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네마 클래식 음악 감상회는 렉시콘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으로 진행돼 고객들은 보다 현장감 있는 높은 수준의 음향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대1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객이 직접 더 K9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시승 기회도 제공한다. /구서운 기자

LG CNS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IoT 결합형 '시티허브'

LG CNS가 업계 최초로 'IoT 결합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티허브(가칭)'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티허브는 교통·안전·에너지·환경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관제하는 스마트시티의 심장 격인 통합플랫폼으로 빌딩·가로등·자동차 등 도시 인프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교통·안전·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한다.

시티허브는 국제 IoT 표준인 oneM2M 뿐만 아니라 물류·제조·유통 등 산업영역별 98종의 통신 표준을 지원한다. 이러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산업별로 다른 통신을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플랫폼 구축없이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LG CNS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빅데이터 플랫폼 '디에이피(DAP)' 등 신기술을 적용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는 고차원적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다. /구서운 기자

립스틱 뚜껑 열면 경보음+112 신고접수

SKT 여성 호신용품 '마이 히어로'

SK텔레콤은 ▲경보음 발생 ▲112 문자 신고 ▲지인 호출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휴대용 여성 호신용품 '마이 히어로(My Hero)'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격은 2만5000원으로 SK텔레콤 공식 대리점, T월드다이렉트를 비롯해 11번가 등 온라인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호신용품은 부피가 크고 모양이 투박해 여성 고객들은 호신용품을 주로 가방 안에 넣고 다녔다. '마이 히어로'는 지름 0.8cm, 높이 8cm로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다. 립스틱 모양의 디자인으로 평소 목걸이로 착용하거나 가방에 달 수 있게 제작됐다.

'마이 히어로' 이용자는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 노출 시 립스틱 뚜껑을 열듯 '마이 히어로' 외부 케이스를 한 번만 뽑으면 된다. 외부 케이스를 뽑으면 약 90d



b 수준의 경보음이 울리고 112에 문자 신고가 접수된다. 또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지인에게 긴급 메시지와 위치 정보가 함께 전달된다.

'마이 히어로'는 사물인터넷(IoT) 제품으로 스마트폰에 'SKT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 후 기기를 등록해야 '마이 히어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